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 골든 클럽 회보

Golden Club News

AUGUST 2020

WE LEAD A HEALTHY AND HAPPY LIFE.

VOL. 100

## 그리운 일상생활 - 여회원 피크닉

고애자 (사대58)



사진 좌측으로부터 홍예경, 송진희(Mrs 임도혁), 고애자, 조승자, 김현미(Mrs 박기환), 이행순, 우영순(Mrs 우규환)

COVID-19 Pandemic으로 집콕 생활한지 4개월에 접어 든다. 월요일은 AWCA에서의 라인 댄스와 브리지 게임, 화요일엔 레이디스 골프 리그, 수요일 브리지 게임 연습, 목요일 부부 골프, 금요일 친구들과 밥 먹고 얘기 나누기, 토요일 집안 일, 일요일 교회 가기로 일주일 일상 생활이 짝 짜여져 매일 바깥나들이를 하던 사람이 어떻게 매일 집에 갇혀 지낼 수 있을까? 참으로 어이가 없었다. 이렇게 매일 밖에 나가 사니 별명이 하나 붙었다. 친구가 집으로 전화 걸어 나를 찾을 때 “그댜 ‘바깥 사람’ 좀 바꿔 주세요.” 한다. 나는 당당히 ‘안 사람’이 아니라 ‘바깥 사람’ 이 된 셈이었다.

하루 하루가 지나면서 평소에 들락날락하며 친구 만나고, 식당에서 수다 떨며 밥 먹고, 같이 산책하고 시시콜콜한 이야기 주고받으며 지나던 일상 생활이 이렇게 그리워질 줄

은 전엔 미처 몰랐다. 언제쯤 평상시 같은 일상 생활을 되찾을 수 있을까? 골든클럽에서 신년교례회를 시작으로 매달 골프 대회, 가까운 야산 하이킹, 여름 피자 파티, 야외 피크닉 더군다나 올 9월의 골든클럽 한국 방문 계획까지 모든 일정이 취소되고 보니 우리들이 매달 만나 하던 행사들이 더욱 그리워진다.

9월이면 한국에 나가 그리운 동문들, 초등학교 강원도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날 스케줄을 나름대로 세우고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그 꿈들이 산산이 깨어지고 말았다. 어느덧 80줄에 접어들어 마지막 한국 방문으로 생각하고 체력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즐기고 오려고 했는데...

더군다나 20여년 매주 화요일 빠짐없이 다니던 Blue Hill Golf Club Ladies League도

올해는 ‘무참히’ 취소되었다. 무얼 하고 어떻게 하루를 보내지? 암담하기조차 했다. 그러던 중 Blue Hill 골프 멤버 중 한국 친구 8명이 팀을 만들어 매주 화요일 스케줄을 짜고 나니 한결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뉴저지 공원들이 열리고, 10여명 소그룹은 만남을 가져도 된다는 발표가 나오자마자 그간 보고 싶었던 친구들 불러 가벼운 김밥 피크닉과 산책을 즐겼다. 모두 즐거워하는 모습에서 또 한 번 평범한 일상생활이 그리우고, 감사할 줄 모르고 지내온 옛날이 후회스러웠다.

그래서 가깝게 살고 있는 골든클럽 여성 친구들을 만나기로 계획하여 G.W.B. 아래 공원에서 피크닉을 가졌다. 오랜만에 만나 무척 반가웠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피해간 건 강한 모습이 더 할 수 없이 좋아 보였다. Mrs. 우규환은 맛있는 홈메이드 유부초밥, 조승자씨는 과일을 시원하고 예쁘게, Mrs. 임도혁(송진희)는 식후 입맛 산뜻한 따끈한 커피, 이행순(미대 60)씨는 면역에 좋은 생강사탕 한 봉지씩 선물, 홍예경씨는 각종 시원한 드링크를 얼음에 채워, 나는 김밥과 닭튀김, 새로 골든클럽에 가입한 Mrs. 박기환 등 모두가 약속도 않았는데 중북되는 것 없이 이심전심으로 가져와서 진수성찬으로 하루를 즐거이 보내면서, 이것이 바로 함께 (together) 함의 아름다움, ‘삶의 보람’ 이라 생각되었다.

모두들 밀렸던 이야기 보따리 풀어 놓으며 옛날 로맨스 스토리들도 앞 다투어 하고, 그간 잃어버렸던 일상을 즐겼다. 이제 경제 재개 4단계가 시작되어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리운 일상생활이 다시 가까워 오는 즈음에 감사하며 다음을 기약하고 헤어졌다.

정말 옛 일상생활이 너무나 그리다 ©

## 골든클럽 2020년 9월 골프대회



올해 COVID-19으로 인해 지난 몇달동안 골프모임을 하지 못하여 많이 섭섭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NY/NJ지역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고 야외에서 하는 운동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으로 올해 첫모임을 아래와 같이 가질 예정입니다. 사회적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는 즐거운 회동이 될 것입니다.

일시: 9월 3일(목) 12:00pm (11:00am 도착 요망)  
 장소: Wallkill Golf Club  
 40 Sands Rd, Middletown, NY 10941  
 참가비: \$100 (Green fee, lunch/dinner 포함)  
 특기: 각자의 기량과 선호에 따라 1부, 2부로 나누어 game을 진행하니, Senior tee group은 1부, Regular tee group은 2부로 신청해 주십시오.  
 신청: 김정필 (201-965-7759 / jaypkim@keiusa.com)

##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제 29차 평의원회의

아래와 같이 미주동창회에서 주관하는 평의원대회가 뉴저지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화목과 발전을 기원하는 평의원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8월 21일 (금) ~ 8월 23일 (일)  
 장소 : New Jersey, Fort Lee 소재 Double Tree Hilton Hotel

평의원회의의 명단  
 등록된 평의원께서는 직접 평의원회의에 참석하실 수 있고 대리 참석도 (위임장 제출) 가능합니다.

한태진, 조상근, 이대영, 정해민, 민준기, 박상원, 김창수, 김영만, 강충무, 임창우, 강교숙 동문님이십니다.

Pandemic때문에 변화가 있으면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뉴욕동창회장 조상근 드림

## 서울대학교 뉴욕동창회 추계 골프대회



뉴욕동창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장학기금 모금 추계 골프대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작년 가을에 계획했었다가 우천으로 취소되었던 뉴저지의 명문 선셋밸리로 동문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이메일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일시: 10월 7일(수) 11:00pm (10:00am 도착 요망)  
 장소: Sunset Valley Golf Club  
 47 W Sunset Rd, Pompton Plains, NJ 07444

신청: 김정필 (201-965-7759 / jaypkim@keiusa.com)



## 뉴욕동창회 2020년 송년회및 총회 안내

뉴욕동창회에서는 2020년 송년회및 총회를 전년과 같이 포트리에 있는 Double Tree Hotel Ballroom에서 개최합니다. 보다 다채롭고 흥겨운 만남의 광장을 계획하고 있으니 모두 참석하셔서 그동안 적조했던 만남을 회복하시고 새로운 해를 다짐하는 좋은 시간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위하여 협찬을 해주실 동문들의 도움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날짜: 2020년 12월 5일 (토요일)  
 시간: 오후 5시 -10시

서울대 뉴욕동창회장 조상근 드림

## 참새도 죽을 땐 ' 짹' 소리

拙著 "...죽어가며" 出刊 후기

장동만 (문리55)

참새도 죽을 때는 '짹' 소리를 낸다고 한다. 죽음의 고통에서 나오는 悲鳴일까? 아니면, 죽는 것이 너무 서러워 울부짖는 悲嘆일까?

"인생이 뭐 별건 가? 이 세상에 왔다가 ' 말 한마디' 남기고 가는 것이지." 한국의

知性(人) 이어령 선생이 九旬을 앞둔 요즘의 심정을 밝힌 述懷다. 그의 '한 마디'는 아마도 그 동안 著述한 수 백 권의 冊속에 縮約되어 있으리라.

어떤 사람(들)은 生前 葬禮(式)을 치루기도 한다. 나(我)가 죽은 後, 내가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는 그 event는 自身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살아 生前 이를 듣고 보고 싶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遺書를 미리 써 놓기도 하고, 자신의 訃告를 손수 작성해 놓기도 한다.

이 세상에 '말 한마디'는 못 남기지만, 마지막으로 '짹' 소리를 한 번 내보고 싶었다. 그래서 遺書를 남기는 심정으로 이 冊子 (Booklet)를 펴냈다. 後에, 이 다음에, 사람들이 "그렇게도 죽음(문제)을 갖고 머리를 쥐어 뜯더니 그영고 너도 그만 갔구나..." 하는 말이라도 들을 수 있을런지...

이 가냘픈 '짹!' 소리를 귀 밝은(?) 이준행 대선배께서 멀리서 들으시고, "불쌍타." "嘉尙타." 하시며, 회원 100여 명에게 돌린 책 발간비용(권 당 \$10.00)을 淸산해 주셨다. 그 用意周到하고 너그러우신 '맘 씬(用心)'에 절로 머리가 숙여진다. 冊의 제98편 "人生 빛 참 많이 졌다"를 다시 써야할 것 같다. 또한 曠선섭 동문이 책 추가 인쇄에 지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다.

80대 중반의 늙다리 낡두리, 頭緒없는 橫說豎說, 그래도 이를 '가 특히' 여겨 同門 여러분께 이를 配布 하는데, 큰 수고를 해준 洪종만 동문을 비롯해 여러 편집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P.S. 冊을 同年輩 여러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뉴욕 한인 老人 상록 회에도 50 부, 뉴저지 한인 老人 상조회에도 50 부를 무상 寄贈 했습니다. ©



## 여성회원 모임 안내

COVID19 사태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7월 22일(수) 오후 1시, Ross Dock Picnic Area, Fort Lee 에서 조심스럽고 조촐한 Lunch Picnic이 있었습니다.

여성회원 모임에 관심있는 분은 고애자 房長(사대58)께 연락하십시오.

201-713-7688, koeja21@gmail.com

## 회원동정



좌측부터 오유섭 김익성 권정덕 회원



좌측부터 김병순 홍종만 최병우 김정필 회원 (7월 15일 Walkill)

## 회원주소 변경 안내

뉴욕동창회 회장인 조상근 회원이 Old Tappan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Sang Geun Cho  
281 Orangeburg Road  
Old Tappan, NJ 07675

곽승용 회원부부가 8월 4일경 Atlanta지역으로 이주합니다.  
9295 Waits Ferry Crossing  
Johns Creek, GA 30097

살아가며 죽어가며  
張東萬의 죽음학 오디오서이



An Odyssey of Life and Death

## 이준행 회장 방문

Covid-19 사태로 모든 행사가 중단되어 이준행 회장께 가끔 안부 전화만 드리다가 5개월 만에 찾아 보았다. 작년 8월 이세영 사모님 장례 후 혼자 지내시게 되어 가족과 주변에서 많이 걱정하였지만, 막상 찾아 보니 권재 용씨를 채용하여 회사 출퇴근, 집안 일, 식사준비 등에 별로 불편없이 생활하시는 것을 보고 역시 상황 판단과 결정이 정확하신 데 감탄하였다.

집안을 둘러보니 이세영 사모님 함께 사실 때 집안 모습 그대로, 차고에는 사모님 타시던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고, 거실에는 서예, 동양화, 민화등 수많은 사모님의 유품이 보관되어 있는데, 적절한 때가 되면 서울에서 가족, 친지를 위한 전시회를 구상하면서, 사모님과 함께 사시던 생활환경을 그대로 유지하는 일편단심에 경의를 표하게 되었다.

요즈음도 매일 Jones Beach를 산책하시며 가끔 최철용 회원과 광어, 농어, tuna 잡이 바다낚시를 나가는데 항상 선장으로 조타수도 겸하신다. 회원들께 한 말씀을 부탁했더니 'Relationship matter'의 요체는 '검손'과 '신용'이라고 강조하시며 26년전 1994년 가을에 발간된 CITIBANK 'Gateway'를 보여주시며, 당시 연매상 3백만불의 중소 규모였지만 신용을 인정받아 우량 거래선으로 선정되어 회보에 소개되고 3백만불의 Credit line을 활용하며 사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회고하셨다.

골든클럽에 젊은 회원들이 많이 들어와 활달하고 진취적인 분위기를 이끌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셨다. ©

홍종만(공대64)



지금도 선장겸 조타수로 바다낚시를 나가시는 이회장님



이회장님을 방문한 최철용 회원 부부와 홍종만 부회장 부부

# GATEWAY

Global Trade Ideas and News for Small Businesses—Brought to You by Citibank

## EASIER DONE THAN SAID

Business is booming in places like Korea, Thailand, China, New Zealand, Saudi Arabia, Mexico, Spain and Indonesia. Millions of entrepreneurs are transforming ancient traditional cultures into economic dynamo.

You hear a lot about the barriers to entering foreign markets, especially for small companies with limited resources, but my experience doesn't bear that out. At Electronic Liquid Fillers (ELF), we went from \$150,000 worth of international business in 1988 to close to \$0 million in 1992, almost half our total sales and all our growth. We started out with no international expertise; we didn't even know what a letter of credit was. Over the past three years I've traveled on business to more than 42 countries, on every continent, peddling my company's liquid-packaging equipment. Take it from me, exporting is easy—or at least much easier than you'd think.

The biggest barrier you'll face is internal, not external; you have to decide you really do want to sell to overseas markets. Once you've made that decision, everything else will fall into place. The reason I emphasize that psychological barrier is that it is very real. You have to overcome a fair amount of skepticism within your company and perhaps in your own gut as well. The objections can be overwhelming.

Exporting is just like selling in U.S. markets with a few cultural nuances thrown in. You don't have to know anything to get started. You just have to make

**CONTRARY TO WHAT YOU MIGHT THINK, YOU DON'T NEED ANY SPECIAL EXPERIENCE OR KNOWLEDGE TO GET INTO EXPORTING. ALL YOU NEED TO DO IS START.**  
BY JEFFREY J. AKE

that first sale. There are dozens of experts—bankers, freight forwarders, shipping agents, customs brokers, trade reps, and consultants—who are dying to get your business and to teach you exactly what you need to know to fill those first orders. That's how I learned. The point is, get the order and fill it the way your customer wants it. And don't worry about language difficulties, either. English is the business language of the world. I've spoken nothing but English in the countries I've visited.

Here's how to get started. Name someone—probably you, but maybe your top sales or marketing person—to be the international target. That person is the vanguard, the leader, the initiator, the one who will pull your company into the international marketplace. Choose a country, and send your tiger those with two weeks' worth of appointments with potential agents and users. The opportunities will be clear soon enough.

Announce to the world that your company's products exist and are available for purchase. At ELF we took two approaches. The rifle shot approach was to enter a specific target country (the United Kingdom) and treat it in essence as another U.S. state. [We] did what we'd do here; created a 5,000-name mailing list, did a mailing, signed up for three industry trade shows, and placed small ads in the leading trade journals.

Continued on page 5

INSIDE ➤ OPPORTUNITIES FOR U.S. EXPORTERS TO HONG KONG  
➤ A QUARTER CENTURY OF IMPORTING SUCCESS ➤ EX-IM BANK PROVIDES WORKING CAPITAL GUARANTEES AND INSURANCE FOR SMALL BUSINESS  
➤ TRADE NEWS ➤ WHERE TO FIND HELP AND ANSWERS (CHINA AND HONG KONG)

CITIBANK

## A QUARTER CENTURY OF IMPORTING SUCCESS

For 23 years Junee Commercial Co., Inc., has been a customer of Citibank. Junee imports wigs, human hair weavings, and braids from manufacturers in Korea, China, and Indonesia for distribution to retailers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A lot has happened in those 23 years, from video games to the space shuttle, from Rubik's Cube to the microcomputer. What has kept Junee and Citibank together through so many chan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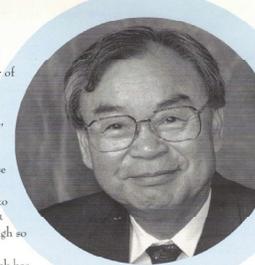
"Over the past 23 years, Citibank has supported us when we needed it to make our business grow," says John Lee, president. "We started with annual sales of \$200,000, and now we are up to more than \$5 million in annual sales. Citibank has provided the financing we needed. I appreciate how it has backed us."

### GLOBAL PRODUCTS

Junee has a line of credit for letters of credit (LCs) and banker's acceptances. It also has a credit line for handling its working capital needs. Its operating account is maintained with Citibank as well.

"We can open LCs from the computer in our office in New York City and have them processed directly by Citicorp Trade Services Ltd. in Hong Kong," says Lee. "We don't have to go to the bank every time we need to establish an LC. As long as it is within our line of credit, we can do it right from our office."

Such convenience is particularly important for Junee's business. "We use LCs a great deal," says Lee. "They are our main method of payment for all purchases of merchandise from overseas." Since all of Junee's suppliers are in the Far East, the processing of LCs through Hong Kong contributes to the timely advising of the letters of credit to the beneficiaries.



JOHN LEE, PRESIDENT OF JUNE COMMERCIAL CO., INC.

Young Lee, and his son, Kevin (left), both of whom are very involved in Junee.

Lee visits his Citibank branch regularly. "The branch is always very efficient and accurate in processing my transactions," he says.

Lee is satisfied with Citibank service not only at his local branch but around the world as well. While traveling, he has enjoyed the advantages of Citibank's traveler's checks. "They are extremely convenient," he says. "And their high acceptance rate around the world lets me take in the sights without worrying about cash."

Human relationships are important not only in banking, says Lee, but also with suppliers and customers. "I recommend meeting face to face with suppliers at least once or twice in the beginning of a working relationship, then visiting their factories once a year so that you get familiar with them and their operations. For customers, we send out a catalog regularly to stay in touch and keep them aware."

A quarter century of importing success has taught Junee Commercial the value of long-term relationships—with its customers, its suppliers, and its bank.

For more information, circle 1094-01 (letters of credit) on the Reader Service Card or call 1-800-328-CITI, ext. 2315. ■

### RELATIONSHIPS MATTER

"To my way of thinking, it is better to stay with one bank, provided you are satisfied with its service—and Citibank has always provided us with excellent service," Lee says. "Over time, you get to know the people and they get to know you. Human relationships are important in ban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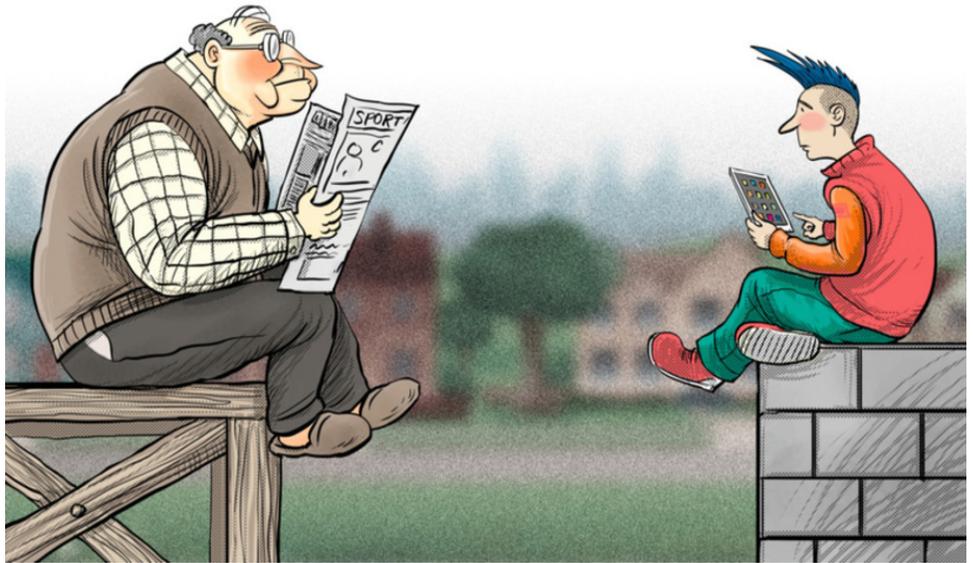
Lee is joined in his business by his wife, Sue



## Generation Gap and Parenthood of Korean American Parent

송근숙 (간호66)

Recently I got a phone call from my 40-year-old son with a sincere apology for his childhood behavior that caused me heartache. Evidently his 4-year-old son who just learned to ride a bicycle declared that he would like to ride a motorcycle when he grew up, which shocked my son with disbelief and intense anxiety. Then he realized that he did the same to his mother (me) when he was in college, and I tried to convince him to get rid of the motorcycle without success. Now my son is a father of three children (6, 4 and 2). He understands what his parents went through when he was young, and has decided to apologize for his childhood rebellious behaviors. My husband and I got a good laugh out of the phone call.



Similar but different notion, I can also share a memorable episode with my daughter's request to pierce her eyebrow during high school. She claimed at the time that she could have done it without asking me first, but did not wish to upset me, so she asked. By the way, she is a lawyer and came to think of it and had great negotiating skills early on. Anyway, my response to her at the time was "not while living under my roof. But when you go to college, you can pierce your eyebrow since you are considered an adult." She waited till she got into the college and pierced her eyebrows. However, she took the eyebrow ring off when she went for the first job interview with the Supreme Court judge, and that was the end of eyebrow ring.

I am content with choices I have made with my own values and beliefs, and what feels right for me as individual, mother, and immigrant.

I am sure that many of the Golden Club members who are parents and grandparents can share similar episodes of generation gaps with their children. However, I found myself as Korean American parent, there are not only generation gaps but

also cultural gaps since Korean Americans are still embedded heavily with Confucianism philosophy that emphasizes ethics and morals (at least I am). I came to the US in 1972, two years after graduating the college. Similar to many of Korean Americans who came to the US in 1970 or earlier, my values and beliefs are locked in the same social norms when I left Korea.

Living in the American individualistic culture for the last 48 years, I still find myself holding on to "obligations to fulfill moral and family responsibilities." These deeply rooted values are embedded in my parenthood and are knowingly or unknowingly transmitted down to my children's values and beliefs. Here is someone who may disagree with me who claims in his book that, "In an individualistic culture, the best life is the freest life. Spiritual formation happens in freedom, not within obligation." (David Brook, 2019. *The Second Mountain – The Quest for a Moral Life*).

In my golden age, I do not find that there is an absolute right or wrong way of living life, instead I am content with choices I have made with my own values and beliefs, and with what feels right for me as an individual, mother and immigrant. ©

## 코로나 우울증 (Corona Blue)

성기로 (약대57)

Corona-19로 정치, 사회, 경제 활동에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특별히 Un-contact (비대면화)와 On-Line화로 대변되는 digital 경제로 세상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Corona 사태를 맞이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으로 불안과 우울증 현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 이른바 Corona Blue (코로나 우울증)라는 새로운 단어가 형성되어 이 Corona Blue를 치료하기 위한 연구 발표가 나타나고 있으며 심지어는 Corona 이혼이라는 사회적 용어가 등장하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Corona stress가 장기화되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로 말미암아 불안이 심각해지고 더 나아가서 우울증이 발생되어 우리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소위 Corona Blue에 대한 인식과 원인 그리고 이로 인한 병적 현상과 대처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Corona에 대한 과도한 정보나 가짜 뉴스가 우리의 불안을 다 증폭시켜주고 있으며, 집 안에서 주로 생활하고 근무하기 때문에 생활 리듬이 바뀌어져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늘 하던 운동이나 사교적 모임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stress가 불안과 우울증이 생기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Corona-19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우리의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답답함을 느낄 수 있으며 호흡이 답답하고 위장에 영향을 주어 소화 안되고 설사를 하게 되고 신경을 자극시켜 두통과 어지러움 증이 생기기도 하며 긴장감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Corona Blue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가한 곳에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친구와 전화 통화를 자주하거나, 장을 건강하게 하는 채소나 생선 잡곡밥과 같은 건강식을 통해서 대장에 기생하는 유익한 세균을 잘 보호함으로써 우리를 기쁘게 하는 serotonin이 많이 분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생각하다 보면 실제로 인생이 긍정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도 Corona-19 라는 어두운 tunnel을 통과하면서 한 달 전만 하더라도 Corona Blue에 걸려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의대를 졸업한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Corona가 찾아와서 올해에는 선교를 가기로 한 모든 계획을 cancel했으며 금년 후반에도 선교의 문은 열릴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45년전 약사 이민으로 이 땅을 밟은 곳은 뉴욕에서 차로 3시간 달려야 하는 펜실베이니아 주와 뉴저지 주 경계에 위치한 Phillipsburg 라는 곳이었는데 그곳에는 한국 교회는 없어서 미국 남침례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너무나 아름다웠으며 아름다운 동산에 위치해서 주일이면 교회 나가는 것이 큰 기쁨이 되었으며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나 친절하고 사랑이 많아서 주일이면 늘 행복했습니다. 담임 목사 Ruth 목사님은 매주 심방 오셔서 기도해주고 미국에 정착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전공이 약학이어서 1년간의 약사 인턴을 하고 면허시험을 봐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을 때 목사님은 주저없이 아는 약국은 하나도 빠지 않고 나를 데리고 다니며 인턴자리를 부탁하셨습니다. 목사님 앞에서는 모두가 yes하지만 그 후 혼자 가면 미국 온지 얼마 안되는 나를 받아 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온지 6개월 만에 뉴욕에서

인턴자리가 있다는 연락이 와서 나는 부득불 이사해야만 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목사님은 수술한 발을 간신히 움직이면서 키가 크고 건장한 성도님과 같이 오셔서 트럭에 이사짐을 싣고 목사님이 직접 운전해서 Bronx에 있는 아파트까지 짐을 내려주고 가셨습니다. 목사님이 가신 후 나도 목사님과 같이 남에게 사랑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바로 선교를 가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80세에 겨우 한의사 면허를 얻고 2년 정도 선교를 다녀왔는데 금년에 못 가게 되니까 앞으로 몇 년이나 더 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면서 나에게 찾아온 것이 Corona Blue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안은 미래에 닥쳐올 일에 대한 걱정 때문이라면, 우울증은 전에 가졌던 것을 상실한다는 상실감 때문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꺼운 얼음 밑에 맑은 물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의 두뇌에는 상실감을 극복하려는 힘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이런 Corona Blue에서 해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Corona-19 로 인하여 집에 머물면서 좀 더 실력 있는 한의사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Corona Blue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 6.25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하며

김영덕 (공대53)

70년전 김일성이 스탈린의 재가를 받아 1950년 6월 25일 북조선 인민군이 38선을 넘어 전면 남침을 하여 탱크부대를 앞세워 수도 서울을 3일만에 점령했다는 소식을 들은 날이 6월 28일이었다. 나는 전남 순천에 있는 매산고등학교 1학년생이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이었다. 우리 가족은 1947년 봄, 강원도 동해안 고래잡이와 정어리로 유명한 고향 장전을 떠나, 38선을 넘어 대한민국에 와서 피난민으로 강원도 주천에서 6개월, 충남 대전에서 1년을 거쳐 순천으로 옮긴 지가 2년밖에 안 되었으니 말이다. 인민군이 특별히 우리 가족을 잡으려 오는 것 같은 불안감을 느껴 온 가족이 잠을 못 이루던 기억이 생생하다. 고등학교 2, 3학년 선배들은 방위군에 입대한다고 하고, 연령 미달인 고1 학생들은 자원 입대하는 학생들도 많았는데, 어머니와 여동생, 남동생을 돌보아야 하는 나로서는 자원 입대를 할 수가 없었다. 날이 갈수록 서울 쪽에서 내려오는 피난민의 숫자가 늘고, 인민군이 빠른 속도로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소문이 그치지 않아 우리 가족도 피난 떠날 준비를 해야했다. 그러나 갈 곳도 막연하였다. 찾아갈 만한 친척도 없었다. 그나마 형님이 철도국 직원들과 같이 먼저 부산으로 철수하였으니, 갈 곳은 그 곳 밖에 없었다.

8살 위 형님은 일본에서 법학을 공부하다가 1945년 해방을 맞아 귀국하였다. 우리 가정은 정어리 공장 주인이었고, 기독교 교인이라는 것과 사상문제로 고향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소문없이 월남하였다. 47년 봄 철원을 거쳐 우리 가족도 월남하여 형님을 찾아 만났을 때는 교통부 대전철도국에 근무하고 있었다. 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해방이 되어 한글을 못 배운 상태로 월남을 했기 때문에 정규 중학교에는 입학이 불가능하여 문교부 허가가 없는 중국, 일본에서 돌아오는 가족들 중 한글을 못 배운 학생들을 위하여 세운 계룡 학관에 입학하였다. 48년 호서중고교로 문교부 인가가 나왔다. 48년 10월 여순반란사건이 발발하여 형님이 정부 조사관 팀에 합류하게되어 순천역으로 발령이 나 우리 가족은 대전에서 순천으로 옮겼고, 나도 매산중학에 전학을 하게 되

었다. 처음 순천에 도착했을 때 강둑에 줄지어 널려 돛자리로 덮여 있던 많은 사상자의 시체가 여순반란사건의 참상을 잘 보여 주었다. 반란 종식과 더불어 동조했거나 양심수들 많은 분이 국민보도연맹(48년 창설)에 가입했다고 한다. 그 후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소위 빨치산 게릴라 활동이 계속되어 순천역 뒷동산 중턱에 있던 우리 집은 소위 빨치산 공비들의 통로가 되어 비가 오는 날이면 어머니가 항상 밖에 못 나가게 특별히 조심 시키시던 기억이 생생하다. 내 나이가 잡혀가기 꼭 좋은 나이였기 때문이다.



우리 가족은 형님 도움으로 순천역 구내 매점 강생회 운영권을 얻어 낮에는 어머니, 방과 후 저녁과 주말에는 나와 동생들이 운영했다. 강생회 본사에서는 빨리 재고정리하고, 물품 보관한 후 떠나라는 지시였다. 재고정리를 해보니 상당수의 물품 재고에 차이가 나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전쟁 끝나고 해결하면 될 테니 피난 갈 준비나 하자고 독려했다. 모든 물품을 역사 창고 안에 보관해 놓고 우리 가족은 최소한의 짐을 챙겨 아무 소식이나 주소도 없이 무조건 형님이 계신 부산 방향으로 떠났다. 부산 방향으로 가는 많은 피난민을 그냥 따라 나섰다. 나는 고1, 여동생 중2, 남동생 초등학교 6학년이니 어머니가 좀 힘들었지만 남들에게 뒤지지 않고 잘 따라오셨다.

하동대교 가까이 와서는 신작로는 자동차나 후퇴하는 군인들이 많아 산길로 가야 한다고 하여 따라 나섰는데 얼마 가지 않아 산골짜기에 흰옷 입은 시체 수백 구가 즐비하게 퍼져 있으며 냄새가 하늘을 찌를 듯 하여 코를 막고 뛰었다. 고개를 넘어 신작로로 나오니 섬진강이 보이는데 수백이 넘

는 피난민들이 모여 있는데, 알고 보니 전날 저녁에 하나밖에 없는 하동대교를 국군과 유엔군이 후퇴하며 폭파했다고 한다. 그 중 길을 잘 아는 분이 남쪽 섬진강 하류로 5리쯤 내려가면 나루터가 있다 하여 그를 따라 나섰다.

신작로에서 까맣게 내려다보이는 절벽 밑에 나루터가 있었고 벌써 많은 사람들이 와서 줄을 서 있었다. 그런데 관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색한 한국군 복장을 한 두사람과 나루터 할아버지가 줄을 세우며 주민등록 조사를 하고 있었다. 먼저 와 있던 젊은 남자가 저에게 귀속말로 "저 조사하는 사람들은 인민군이예요. 어제 밤에 인민군이 하동에 들어왔답니다." 그 순간 우리 식구는 여기서 모든 것이 끝이 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의 주민등록증을 건어 변소로 뛰어가 밑으로 던지고 나무 꼬챙이로 깊숙이 밀어 넣었다. 우리는 강원도 주천에서 피난 왔으며 오는 도중 주민증을 다 잃어버렸다고 말하려고 했다. 수백명이 줄을 섰는데 우리는 중간쯤 있었다. 조사원이 우리 가까이 약 20여명 남았는데 갑자기 중지하고 젊은 청년들만 먼저 나오라고 확성기로 불렀다. 나한테도 손가락으로 지적을 했는데 어머니와 동생들을 가르치니까 곧 다른 청년을 지적하여 약 40여명의 청년들을 먼저 나루배에 꼭 채웠다. 갑자기 여러 대의 트럭 소리가 50m 절벽 위 신작로 길에서 들려왔다. 순간 두 군인이 가슴에서 태극기를 꺼내어 흔들며 "우리는 국군이요"를 외치며 나루배로 뛰어 타고 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후퇴가 늦었던 우리 국군 부대였다. 섬진강 하동대교가 파괴된 것을 미처 몰랐던 것이다. 나루배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눈치챈 국군 부대가 기관총으로 사격을 시작하자마자 섬진강 건너편에 잠복 준비하고 있던 인민군 기관포는 물론 대량 포격이 시작되고, 피난민들은 혼비백산하여 사방으로 흩어졌다.

어머니는 그래도 남쪽으로 가면 강을 건널 수 있을 거라고 하여 우리는 정신없이 논밭 두렁을 타고 두시간은 뛰었다. 강가에 작은 농가를 찾아 들어왔는데 그 곳에 밀집모자 쓴 얼굴이 새까맣게 탄 40대 청년과 가족과

빠만 남은 50대 남자 가족이 있었다. 3살된 아들을 어깨에 X자 뿔뿔로 업고 서울서 걸어서 21일을 왔단다. 나와 동갑인 고1 여학생과 3식구였다. 섬진강 건널 걱정을 하니, 밀집모자 청년은 다 준비해 놓았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 기다렸다.

다음날 이른 새벽, 농가에서 쓰는 작은 어선에 우리 8명을 태우고 갈대밭 사이로 빠져나가 물결 따라 무사히 서쪽 안벽 쪽으로 오긴 했는데 썰물때가 되어 20-30m거리의 뺨을 걸어 나가야 했다. 농부에게 사의를 하려고 하니 밀집모자 청년이 충분히 사례를 했다고 하였다. 다들 인사를 하고 뺨을 걸어 나가는데 어머니는 힘이 드시니 아예 뺨에 누어 자기는 여기서 죽을 테니 우리끼리 가라고 하셨다. 그때 밀집모자 청년이 달려와 양팔을 같이 끌어 무사히 해안까지 왔다. 어머니를 강물로 목욕을 해드리고 나니 동이 뜨기 시작했다. 길을 잘 아는 밀집모자 청년의 안내로 곤양 방향으로 걸었다. 그런데 1 시간도 못 가서 UN군 첩보원을 만났다. 지금 인민군이 500m 전방까지 와 있어 UN군이 곧 후퇴할 테니 빨리 대피하라고 했다. 그 밀집모자 청년은 첩보 대원들과 합류했고, 우리 두 가정 식구들은 있는 힘을 다하여 곤양을 향하여 달렸다. 불행히도 후퇴하는 UN 군 트럭들은 먼지로 온 세상을 뒤덮으며 우리들을 쳐다 볼 여유도 없어 보였다. 그날 간신히 곤양에 도착하니 UN 군은 이미 진주로 후퇴했는데 인민군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한다. 부산으로 가려면 10리 남쪽에 있는 서포리에서 나룻배를 타고 사천만을 건너 20여리 걸으면 삼천포가 나오고 거기서 부산가는 연락선을 타면 된다고 했다. 그래서 두 가정은 부지런히 서포리를 찾았고 나룻배를 수소문하여 너무 어렵기 전에 떠나기로 약속을 하고 길가 정자나무 밑에서 폭 잠이 들고 말았다.

내 여동생이 시간됐다고 다들 깨웠다. 그런데 어머니가 깨어나기는 했는데 움직이지 못하시겠다. 오른쪽 발목을 빼셨단다. 내가 업고 가겠다하니, 얼굴을 설레설레 돌리면서 송씨 아저씨네하고 너희 3명만 가라고 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이곳에 남아 할 일이 있다 하셨다. 어머니의 심중을 잘 아는 나로서는 같이 왔던 송선생 가족만 먼저 떠나도록 종용하여 보냈다. 동네 의사 분을 수소문하여 어머니 진단을 했는데 먼 거리를 걸을 수 있

는 형편은 안된다고 했다. 나는 어머니를 모시고 이 곳 서포리에서 전쟁을 치를 결심을 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생각은 완강했다. 그래서 또 어렵게 수소문하여 나룻배를 준비했다. 어머니 생각에는 나나 여동생은 틀림없이 인민군에게 끌려갈 거라고 확신하고 계셨다. 그 이튿날 나와 여동생 둘이서 어머니와 꼬마 동생을 남겨 놓고 나룻배를 타고 사천만을 건넜다. 그러나 나는 도저히 나룻배에서 내릴 수가 없었다. 다행히도 내 여동



생도 동감이었다. 우리는 그대로 돌아왔고 그 이튿날 인민군 부대가 들어왔다고 들었다. 나룻배를 수소문해 주셨던 부산 수산대학 학생의 소개로 이씨 집 사랑방이 비어있다고 하여 내가 그 집 허드렛일을 해주는 조건으로 자리를 잡았다. 머슴으로 들어간 셈이다. 몸 건강하고 일 잘하니 그 이상 더 바랄 게 없었다. 나무하고 특히 갈대나 긴 풀을 많이 자르고 날라야 하는데 어렸을 때 고향에서 많이 해봐서 욱 안 먹을 정도 할 수 있었지만, 퐁퐁지계에 익숙해지는데 며칠 걸렸다. 며칠 후 이씨 집에 인민군 두 명과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인민위원회를 결성 집주인 이씨가 서포리 위원장이 됐다고 들었다.

그 때부터 두달 동안 인민군이 후퇴할 때까지 나는 인민위원장집 일꾼으로 모범을 보이기 위하여, 속으로는 우리 가족이 이북 피난민이라는 것을 감추기 위하여 열심히 일했다. 일의 대부분이 인민군의 지시에 따

라 방공호 파는 일, 포탄 나르는 일 등이었다. 이 작은 서포리에서도 국군이 후퇴하며 빨치산 동조자들과 보도연맹회원들을 많이 사살하고 떠났기에 인민군이 들어오자마자 그들을 앞세워 희생된 가족들이 들고 일어나 관련됐다고 생각되는 경찰 및 공무원 가족들을 수없이 잡아 들여 연일 인민재판이 이루어졌고 많은 보복 처형이 일어났다. 이씨 운영위원장집에 와서 그 복수심에 불타는 가족들의 누구를 잡아 들이라고 하는 고향 소리가 귀에 생생하다. 어머니와 여동생은 서포리 어장에서 생선을 받아 곤양에 가서 팔아 생계를 유지하였다.

8월말이 되어 UN군 함대가 사천만 앞바다로부터 함포사격을 시작했는데 온 천지를 흔들며 놓아 정신을 잃게 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드디어 인민군이 후퇴하기 시작하였고 며칠 후 국군과 UN군을 따라 경찰과 공무원들이 돌아 왔다. 돌아오자마자 집 주인 이씨를 위시하여 인민군 점령 시기에 날뛰던 사람들을 다 잡아 들였다. 나도 부역했다고 경찰서에 감금되어 조서를 작성하였다. 이북에서 38선 넘어 피난 온 사람이라고 호소해도 소용없어 결국 어머니가 일주일일 걸려 순천에 가서 매산고등학교 교목님을 모셔와 증인이 돼 주셔서 풀려나왔다. 나와 같이 감옥에 있으면서 처형장으로 힘없이 끌려 나가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주인집 이씨가 처형 당했다는 소식도 들었다. 민족 전쟁의 쓰라림을 가슴에 안고 순천에 돌아와 보니 강생회가 있던 순천 역사가 폭격으로 자취가 없어졌으며 우리가 살던 집도 폐허가 됐다.

하늘은 무심치 않았다. 매산고등학교 교목님에게 형님 편지가 와 있었고 UN군의 인민군 포로조사관팀에 합류하여 거제도 옥포에 와 있으니 오라는 기별이었다. 여수에서 배를 타고 거제도 장승포를 거쳐 옥포에 도착 온가족이 살아 극적인 재상봉을 하였다. 너무 기뻐서 눈물을 감추지 못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은 내 마음 깊이 새겨져 있다. 형님은 고현과 연초에 있는 포로수용소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형님 소개로 UN군이 운영하는 디젤발전소에서 house boy로 일을 시작했다. 돈은 몇 푼 못 받았지만 부수입이 많았다. 내가 제일 좋아하던 미국 comic books, Readers Digest, Popular Mechanics, News week, Time magazine

등 한 달이면 30여권을 모을 수 있었고, C-ration 등 많은 음식물을 나에게 주었다. 책임자 상사1명과 정비공 하사가 3명 있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며 영어 회화를 연습할 수 있었던 것도 내 행운이었다.

그해 12월 중공군의 침입으로 함흥과 흥남에서 피난민 15만명을 해군함정으로 철수시켜 거제도에 이송한 것은 한국전사의 획기적 사건이었다. 거제도 각 지역에 분포됐고 옥포, 장승포에도 많이 정착하였다. 동시에 젊은 학생들을 위하여 장승포에 기존에 있던 거제중학교에 고등학교를 추가하였으며 대광중고교 등 여러 학교의 분교들을 마을마다 세웠다. 다행히 나는 거제고등학교가 설립되던 해에 입학하여 1953년 제1회 졸업생이 되었다. 13명 졸업생 중 4명이 여자이고 9명이 남자였으며, 거제도 출신 1명, 서울 및 남한 출신 5명, 흥남 및 이북 출신이 7명으로 다수였다. 나는 발전소에서 주중에는 야간근무, 주말에는 낮근무를 하며 거제고등학교를 다녔다.

40리 길이니 운이 좋으면 미군 트럭을 타고 쉽게 가고, 아니면 옥포에 걸어가서 나룻배로 학교를 다녔다. 밤잠도 못 자면서 견디어 낸 것이 기적만 같다. 집에서 잔 기억이 주말 밖에 없었던 것 같다. 우리 가족은 다 문재린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옥포장로교회에 나갔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흥남에서 내려오신 피난민이었다. 목사님은 학생들을 위하여 대광중고 옥포 분교를 설립하여 텐트교실을 만들어 운용을 하였다. 형님도 시간이 되는 날이면 고등학교 영어 강의를 하셨다. 다행히 피난와 계신 선생님들이 있어 학교가 유지되었다.

1953년 3월 대학 입시 시절이다. 고3 학생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시기였다. 다행히 서울에 있는 많은 대학이 정부를 따라 부산에 와서 분교를 운영하고 있었다.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등. 우리집 형편이 나를 부산으로 유학 보내기는 불가능하니, 내가 1년간 미군 부대에 취직하여 학자금을 마련하여 다음 해에 가겠다고 말씀드렸으나 형님과 어머니는 방법이 있을 테니 금년에 입학시험을 치라 하였다. 경성약전에 입

학하였으나 폐병으로 돌아간 누님의 유언이라고 어머니가 나는 꼭 경성제대에 가야 한다고 하여 서울대에 입학원서를 제출해야 하였다. 고등학교 친구 아버지를 만났는데 전쟁으로 폐허 된 나라 재건하려면 토목쟁이가 제일 할 일이 많을 거라고 하여 토목과를 지망했다. 부산에 아는 사람도 없고 여비도 충분치 못하여 걱정하던 중, 늘 학생들에게 배려가 많으셨던 진도선 교장선생님을 찾아 뵈고 도움을 청했더니 웃으시며,



"마침 잘됐다. 영삼이 졸업하고 국회의원 나 온다고 선거 운동한다고 하니 사무실 찾아가면 시험 볼 동안 돌보아 줄까다." 하시며 소개 및 부탁의 편지를 김영삼후보에게 써 주셨다. 그리하여 어렵게 찾아 갔더니 편지를 보시고 "니 이거 후에 다 갚아야 한다. 니 아냐?" 하시며 꼭소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국제시장 근처에 있던 사무실에서 일주일 동안 직원들과 같이 먹고 자면서 무사히 입학시험을 치르고 돌아 왔다.

시험 결과에 자신도 없고, 등록금은 물론 생활비, 교통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 대학진학을 포기하기로 결심하고 있었다. 시험 합격자 명단이 신문에 나왔는데 나의 관심 밖이었다. 그러던 중 주일날, 교회 예배 끝나고 문재린 목사님께서 나를 보자고 하여 찾아 뵈더니, 어느 장로님이 부산에 갔다 오시며 갖고 왔다는 서울대학 합격자 명단이 발표된 신문을 나에게 보여주며 내가 공과대학 토목과에 합격이 됐다고 축하해 주셨다. 내가 차분히 내 결심을 말씀드렸더니 한참 침묵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 기회가 언제나 오는 것이 아니

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시며 그날 저녁 기도회에 참석하여 나의 인생에 대한 간단한 간증을 하라고 하셨다. 그렇게 해서 거둔 돈 1만원으로 53년 3월 부산에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과에 입학했다.

입학하자마자 나는 서면에 있는 미군 부대에서 일주일에 2일씩 노동을 하며 등교하여 강의를 들었다. 얼마 안되어 이승만대통령의 특별지시로 부산에 있는 전 대학생들이 휴전 반대 데모에 참여했다. 반공포로석방 등 이승만대통령의 기발하고 과감한 전략으로 휴전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을 수 있었기에 오늘까지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기초가 된 것을 생각하면 명칭히 데모에 따라다니던 내가 한스럽기도 하다. 그래도 그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이루어질 때 한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축복이다. 그렇게 해서 6.25는 휴전으로 종식하고 정부와 모든 대학들과 교육기관들이 서울로 환도했다.

6.25 관련, 나의 꼬리표가 됐던 서포리에서의 인민군 부역 문제는 서포리 경찰서에서 작성한 나의 부역 인증서 때문이었다. 그 후 1958년, 대학 졸업하고 해군 특교대 훈련을 마치고 해군 소위로 임관하였다. 진해시설장에 근무중, 시설감의 추천을 받아 California주 Port Hueneme 소재 미해군 공병단에 건설중장비 관리와 원자전을 위한 방위시설 건설이란 장교 Course로 8개월 갔다 왔다. 중위로 승진 진해 해군수송대 보좌관으로 근무 시 60년 3.15 부정 선거 시 차량배치, 4.19 데모 집중 관전, 61년 5.16 혁명 시 진해역 방위책을 맡음으로써 박정희 혁명사령관 서명 감사장을 받았다. 63년 제대하고 캐나다 유학을 떠나는데, 내무부 조사국에서 신원조회가 부역 문제로 걸려 있었으나, 내무부 조사국장을 만나 잘 해결되어 유학을 떠날 수 있었다. 내가 현재 알고 있기는 78년 부역 관련 모든 서류들이 파기된 것으로 안다. 역사의 Irony. 70년전 이야기가 옛그제 이야기 같다. ©

## 경이로운 우주

오 성 (법대76)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실로 경이롭기 그지없다. 현대 과학, 천문학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인류가 알아낸 것은 우주의 5%에 불과하다. 지난 100년간 과학사에서 이루어진 가장 위대한 발견의 하나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929년 미국의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1889-1953)은 외계 은하와의 거리를 측정하고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은하일 수록 더 빠르게 떨어진다는 것(허블의 법칙)을 은하 빛의 적색편이(도플러 효과)를 통해 발견했다. 우주가 태초에 대폭발을 일으켜 현재의 우주가 생성됐다는 빅뱅 우주론이 이로 인해 정설로 자리잡게 되었다. 우주가 정적 상태일 것으로 가정했던 아인슈타인은 허블의 강연을 듣고 “내가 들었던 것 중 가장 아름답고 만족스러운 해석”이라며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고 우주팽창론을 긍정했다고 한다. 빅뱅 이후 우주는 계속 팽창할 수도, 다시 수축하여 붕괴될 수도 있었다. 이 갈림길에서 우주의 운명을 결정짓는 요인은 팽창력과 중력이었다. 영국의 이론물리학자 스티븐 호킹(1942-2018)은 “대폭발 1초 뒤의 팽창률이 1조 X 10만분의 1이라도 작았다면 우주는 현재의 크기에 도달하기 전에 붕괴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거리의 역제곱으로 중력이 약화되고 팽창력이 승리하면서 우주는 138억년이 지난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 우주의 밀도(오메가 상수)가 좀더 작았다면 가스 구름이 너무 빨리 팽창해 은하와 별이 형성되기도 전에 우주가 차갑게 식을 수도 있었다.

빅뱅 직후 우주는 어떤 상태였을까. 천문학자들의 추론에 따르면 빅뱅 100억분의 1초 후 용광로처럼 뜨거운 상태 속에 빛과 물질이 생겨나 서로 탈바꿈하였으나 1000분의 1초 후에는 빛은 빛으로, 물질은 물질로 남아 ‘입자시대’가 시작됐다. 원자 구성의 기본단위인 쿼크와 양성자, 중성자가 생겨났다. 빅뱅 이후 약 5분간 핵융합이 지속되어 수소와 헬륨이 3:1 비율로 생겨났다. 빅뱅 후 38만년 동안은 양성자, 중성자, 전자, 광자가 뒤섞인 혼돈의 시대였다. 38만년 후 전자들이 수소와 헬륨의 핵에 포획되어 완전한 수소, 헬륨 원자들이 생겨났

다. 이 시기에 광자가 전 우주에 퍼져나갔으며, 빅뱅을 입증하는 우주배경복사(cosmic microwave background radiation)가 1965년 전파망원경에 의해 발견됐다. 수소와 헬륨을 만들어낸 빅뱅 다음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은 은하와 별의 탄생이다. 초기 우주에 퍼져나간 물질에 10만분의 1 밀도변화가 생겼고, 중력에 의해 가스가 응집하면서 우주에는 거대한 필라멘트 구조가 형성됐다. 빅뱅후 4억년이 지나 은하와 최초의 별이 탄생했다. 1991년 허블 우주망원경은 보름달 50분의 1 크기의 작은 우주공간을 4개월간 깊이 관찰했는데 5,500개 정도의 새로운 은하가 발견돼 천문학자들을 놀라게 했다. 영국 노팅엄 대학 천체물리학 교수 팀은 허블 우주망원경 등이 촬영한 은하들의 3D 맵을 15년간 연구해 우주에는 당초 추정된 2천억개보다 10배 많은 최소 2조개의 은하가 있다고 2017년 천체물리학 저널에 발표했다.

은하들은 얇은 원반 모습의 나선형 은하와 공 모양의 타원형 은하로 대별된다. 새로운 별들은 은하의 70%를 차지하는 나선형 은하에서 대부분 탄생된다.

태양처럼 작은 별들은 수명이 약 100억년으로 길고, 죽을 때 백색왜성이 되면서 자기가 만든 원소들의 약 절반을 우주에 환원한다. 태양보다 조금 무거운 별들은 죽어서 중성자별이 된다. 중성자별이 충돌하면 금, 은 원소가 생겨난다.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별들은 핵융합 반응이 활발해 연료를 더 빨리 소진하여 수명이 1000만년 정도로 짧다. 죽을 때는 초신성 폭발을 하여 그동안 생성된 원소의 90%를 우주의 광대한 지역에 뿌려놓는다. 대폭발할 때 코발트, 니켈, 구리, 아연 등 좀더 무거운 원소들이 탄생한다. 우주는 보통물질 4.9%, 암흑물질 26.8%, 암흑 에너지 68.3%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미국의 천문학자 베라 루빈(1928-2016)은 은하 나선 팔의 회전 속도를 관측하여 암흑물질의 중력 작용을 발견했다. 암흑물질의 존재는 입증됐지만 암흑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그 정체는 아직 미궁속에 있다. 빅뱅으로 태어난 수소와 헬륨은 우주내 보통물질의 98%를 차지한다. 별의 핵융합과 중성자별 충돌로 생겨난 무거운 원자들은 우주 보통물질의 2%에 불과하나 생명체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구에서 사는 사람의 몸은 산소 65%, 탄소 18%, 수소 10%, 질소 3%, 인 1%, 황 0.3% 등 6가지 주요 원소가 체중의 97.3%를 차지한다. 빅뱅이 만든 수소원자, 작은 별들이 만든 탄소와 질소, 초신성 폭발에 의해 생겨난 산소, 인, 황 원소를 우리는 지구에서 약 100년 빌려쓰고 우주로 돌려준다. 우주가 빅뱅 이후 현재의 모습이 된 것은 미세한 조건들이 맞아야 가능한 기적같은 일이었다. 빛의 일정한 속도 등 자연은 어떤 상수(Constant) 값을 갖고 있는데, 이 상수가 약간만 달랐어도 지금의 우주는 생겨날 수 없었다. 예컨대 중력이 더 약하면 별이 없는 우주가 될 수도 있고, 원자핵 양성자들을 서로 결합시키는 힘(강력)이 매우 약하면 수소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생겨나지 않았을 수 있다.

호주의 물리학자 Brandon Carter는 “현대 과학을 통해 관찰한 우주는 인간과 별이 탄생하기에 매우 적합하고 이를 위해 상수들이 미세조정된(fine-tuned) 것처럼 보인다”면서 1974년 인류원리(Anthropic

Principle)란 용어를 처음 사용했고 John Barrow, Paul Davies와 같은 천문학자들이 이를 대중에 널리 알렸다.

우주가 엄청난 속도로 팽창하기 때문에 우주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도 놀라운 사실이다. 우주를 가득 채운 별들의 빛이 모두 지구에 도달한다면 태양보다 15만배 밝을 것이며, 별빛 에너지로 지표는 용암처럼 뜨거워지고, 전 우주에 사람은 물론 어떠한 생명체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밤하늘이 낮처럼 밝아야 하는데 깜깜한 '올버스의 역설'을 두고 뉴턴, 케플러, 켈빈 등 과학자들은 수세기 동안 고민했다. 허블이 우주 팽창을 발견하여 이 문제는 해결됐다. 은하들이 빠르게 멀어지면서 빛의 파장이 길어져 적외선 파장으로 변하거나. 광속 이상으로 멀어지는 은하의 빛이 지구에 도달하지 않는 까닭에 밤하늘은 제한된 숫자의 별이 초롱초롱 빛나는 까만 밤하늘이 되었다.

우주에 수백, 수천억개의 별을 가진 은하가 수천억개 있다는 것을 알게된 후 나는 우주에 도대체 별들이 왜 그렇게 많아야 할까 의문을 갖곤 했다. 그러나 그 많은 별들이 수소를 원료로 산소, 탄소, 질소 등 많은 원소를 만들어 우주공간에 뿌려준 덕분에 행성이 생기고 138억년 후 지구라는 행성에서는 온갖 진귀한 식물과 동물,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게 되었다. 우주 공간이 한 순간도 쉬지 않고 빛의 속도(초속 30만km) 이상으로 맹렬히 팽창하고 있는 덕분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지구 위에서 호호하며 생명을 누리고 있다. (우주 팽창으로 이동하는 우리 은하의 중심을 태양은 초속 220km로 공전하고 있으며, 지구는 태양과 함께 이동하면서 태양주위를 초속 29.8km로 공전하고 초속 463m로 자전하고 있다.) 한마디로 우주는 생명체의 탄생과 진화를 위해 수천억, 수조개의 별을 만들어냈고 엄청난 속도로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 우주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우주에 보답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우주는 내가 무엇을 하기를 바랄까. 우주에 한없이 감사하면서 지구에서의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우주에 한점 부끄럼 없는 모습이 되기를 소망해본다. ©

## CITIZEN TRUMP

정도현 (공대 57)

I heard a few excerpts from a book written by Mary Trump, the niece of Donald Trump, which is to be published soon. I wish Orson Welles is still alive, because he would have a source for the perfect Sequel to his 1941 landmark movie CITIZEN KANE. What I hear from the book by Ms. Trump brings eerie chilling similarities of the main character of the Welles' masterpiece.

CITIZEN KANE is considered by many to be the greatest movie ever made. The quasi-biographical film examines the life of Charles Foster Kane, directed and played by Welles as Kane, a character based in part upon the American newspaper magnet William Randolph Hearst. ROSEBUD, the last word by Kane in his dying bed, is still enigmatic. Some movie critics suggested that "it is the emblem of the innocence of childhood, which a man can spend his lifetime seeking to regain." The movie loops though time by flashing back. Kane is not self-made man just like Trump. He had his wealth handed to him. He grew up under a harshly domineering mother (Trump's case, it is his father) and was sent to boarding school, and it was a beginning of Kane's life trajectory with childhood emotional scar. Never an underdog, he was haughty, impulsive, charismatic and had many touches of genius. He struck a gold in publishing business with the mass media manipulation that was an early example of the power of the media conglomerates

like Ted Turner and Rupert



Murdoch. He married the president daughter and dabbled with politics. He also flaunted with other women. Progressively he began to sacrifice his ideals to build his financial empire while losing his friendship and ultimately lost everything including his integrity brought on by "Lust for Power & Wealth". He isolated himself behind Xanadu, a massive Castle (Hearst's San Simeon, Trump's Mar Largo & Trump Tower) where he became a captive until his death. Kane lacks the one thing he cannot buy -- LOVE. Welles' conception of Kane is a man who had every material advantage in life, but who lacked a Feeling of Human Sympathy and Tolerance. It is a Story of Spiritual Failure. FAMILIAR?

Now Orson Welles is not around, he is long gone a few decades ago. My second choice would be Martin Scorsese who directed "Taxi Driver", "Raging Bull" and many other acclaimed movies. He is a master of portraying many flawed personalities -- lives of tortured, violent, guilt-ridden characters with a raw rages & jealousy. His life-long collaborator, Robert De Niro, would be a perfect fit to play Donald Trump. ©

**회원 명단 (102명 / 2020-07-15)**

|     |     |     |     |     |     |
|-----|-----|-----|-----|-----|-----|
| 강교숙 | 김영덕 | 손경택 | 윤현남 | 임호순 | 최철용 |
| 강에드 | 김영만 | 손대화 | 이강홍 | 장동만 | 최학주 |
| 강영선 | 김우영 | 손옥화 | 이국진 | 고애자 | 추재욱 |
| 계동휘 | 김익성 | 송근수 | 이기덕 | 정도현 | 한영수 |
| 곽상준 | 김인형 | 송웅길 | 이대연 | 정수일 | 한용오 |
| 곽선섭 | 김재경 | 송현자 | 이대영 | 정해민 | 한태진 |
| 곽승용 | 김정필 | 송학린 | 이범선 | 조달훈 | 허용웅 |
| 구달회 | 김종울 | 신진식 | 이수호 | 조승자 | 홍사만 |
| 권영대 | 김창수 | 이정자 | 이전구 | 조상근 | 홍정표 |
| 권정덕 | 김태일 | 신원철 | 이정필 | 주재양 | 홍종만 |
| 권태진 | 김현중 | 신응남 | 이종대 | 진봉일 | 홍예경 |
| 김광수 | 노용면 | 양인회 | 이종석 | 최구진 | 홍지복 |
| 김광현 | 민준기 | 오 성 | 이준행 | 최병우 |     |
| 김동건 | 박기환 | 오순문 | 이준희 | 최수용 |     |
| 김병순 | 박희병 | 오유섭 | 이행순 | 최순채 |     |
| 김문경 | 배상규 | 오인석 | 임호순 | 최준희 |     |
| 김분언 | 성기로 | 우규환 | 이홍빈 | 최진영 |     |
| 김상만 | 손갑수 | 유무영 | 임도혁 |     |     |

**골든클럽 2020년 행사 일람 (Updated: 2020-07-15)**

|       |          |  |
|-------|----------|--|
| 1월    | 1/26~2/1 | Winter Golf Trip, Palm Beach, FL, 31명 참가 |
| 3월    | 28 (토)   | 신년교례회 - 취소                               |
| 4월    | 16 (목)   | Opening Golf Outing - 취소                 |
|       | 30 (목)   | Hiking, Harriman State Park - 취소         |
| 5월    | 13 (수)   | 동창회 춘계 골프대회 - 취소                         |
| 6월    | 11 (목)   | Golf Outing - 취소                         |
|       | 24 (수)   | Picnic, Pizza Party - 취소                 |
| 7월    | 9 (목)    | Golf Outing - 취소                         |
|       | 22 (수)   | 문화, 예술, 정원 등 경승지 방문 - 취소                 |
| 8월    | 6 (목)    | Golf Outing - 취소                         |
|       | 20 (목)   | BBQ Picnic, Westchester County Park - 취소 |
| 9월    | 3 (목)    | Golf Outing - Wallkill Golf Club         |
| 10월   | 7 (수)    | 동창회 추계 골프대회 - Sunset Valley Golf Club    |
|       | 22 (목)   | Hiking                                   |
|       | 29 (목)   | Season-off Golf Outing                   |
| 12월   | 5 (토)    | 뉴욕동창회 송년회및 총회                            |
| 2021년 |          |  |
| 1월    | 27~31    | Florida Golf Trip                        |
| 3월    | 27 (토)   | 신년교례회                                    |

**2020년 연회비 납부 명단 (60명 / \$6,000 / 2020-07-15)**

|     |     |      |     |      |      |
|-----|-----|------|-----|------|------|
| 강에드 | 김상만 | 배상규  | 이정자 | 이용대  | 주재양  |
| 강교숙 | 김영만 | 손갑수  | 양인회 | 이정필  | 최순채  |
| 계동휘 | 김우영 | 손경택  | 오 성 | 이종대  | 최준희  |
| 곽상준 | 김인형 | 손옥화  | 오순문 | 이준희  | 최철용  |
| 곽선섭 | 김재경 | 송근수  | 오유섭 | 이행순  | 한용오  |
| 곽승용 | 김종울 | 송웅길  | 오인석 | 임호순  | 한태진  |
| 권영대 | 김현중 | 송현자  | 우규환 | 정해민  | 홍사만  |
| 권정덕 | 노용면 | 송학린  | 이강홍 | 조달훈/ | 홍정표  |
| 김광현 | 박기환 | 신원철  | 이국진 | 조승자  | 홍종만/ |
| 김병순 | 박희병 | 신진식/ | 이범선 | 주상선  | 홍예경  |

**2020년 후원금 납부 명단 (16명 / \$5,900 / 2020-07-15)**

|        |          |        |
|--------|----------|--------|
| 곽선섭100 | 손경택1,000 | 임호순300 |
| 곽승용200 | 송학린500   | 정해민500 |
| 권정덕200 | 우규환200   | 최철용300 |
| 김광현100 | 이강홍300   | 한태진500 |
| 김종울200 | 이준행1,000 |        |
| 성기로300 | 이행순200   |        |

**8월 생일을 축하합니다**



- 곽상준 (약대55)
- 김상만 (법대52)
- 송웅길 (대학원)
- 윤현남(공대64)
- 이대연 (약대65)
- 정해민 (법대55)
- 홍종만 (공대64)

**골든클럽 컴퓨터연구원 강의**



뉴욕 매주 화요일 / 오전 10시 - 오후1시  
 뉴욕새힘장로교회  
 47-33 Little Neck Pkwy, Little Neck, NY 11362

뉴저지 매주 월요일 / 오전 9시 30분 - 오후 1시  
 버겐카운티 장로교회 교육관  
 100 Rochelle Ave, Rochelle Park, NJ 07662

공적집회가 허용될 때까지는 Zoom Video 강의로 대체합니다

**골든클럽 회원 귀하**

아래 회비 납부 양식을 Check (payable to **SNUAA**)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 SNUAA 261A 4th St., Palisades Park, NJ 07650  
 (T) 646-342-2667 (E) hong1945@gmail.com

**골든클럽 회비 납부 양식**

성명: (한글) \_\_\_\_\_ (영문) \_\_\_\_\_ 생년월일: \_\_\_\_\_

단과대: \_\_\_\_\_ 학과: \_\_\_\_\_ 입학년도: \_\_\_\_\_ 졸업년도: \_\_\_\_\_

전화번호: \_\_\_\_\_ Email: \_\_\_\_\_

- 입회비 \$200
- 연회비 \$100
- 후원금 (\$) \_\_\_\_\_ )

주소 (Home): \_\_\_\_\_